

협오감 없는 '공원식 영탑' 바람직

'남골 어떻게...' 조계종 공청회

남골당을 통한 새로운 화장장 묘제도를 정착시키고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29일 조계종 총무원과 복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 '불교계 남골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흥 영각사 현법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사원중심의 영묘전 남골당의 현대화, 공원화를 통해 혐오스럽다는 종래의 편견을 일소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장묘제도 마련,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골당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통한 국민유도 △법국민적 차원의 홍보와 지속적 계도 등을 지적했다.

이어 사례발표에 나선 한마음선원 무예스님은 "한마음선원 탑공원은 불교의 전통적 장례법인 부도탑을 현대화하여 국내최초로 조성, 봉탑제부터 49제까지 탑공원이 위치한 사찰에서 일괄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선원 금영지원 영탑공원.

다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내에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홍석(동대교수), 유경석(사회복지재단 전문위원)등과 관련기관의 대표들은 종교계가 심각한 묘지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바른 화장장제 문화정착을 위해 시흥 영각사 영묘전과 한마음선원 탑공원의 성공적 운영을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남골당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규정의 보완등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은자 기자

'묘지난 해소책' 정부 지원·대국민 홍보 절실

특히 공원식으로 조성돼 있는 탑공원은 일반 공원묘지나 남골당과 달리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어 인근학교의 소풍지, 휴일에는 지역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

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한 화장장제도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국내 남골당 시설의 낙후상이 주는 혐오스럽음과 남골당 주변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남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것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매장 선호의 장묘제도가 개선되지않고 현재의 추세로 간

'한국불교 東亞서 가장 희망적'

美학술회의 정병조교수 "비구니스님·재가 수행 기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치'를 주제로 한 불교국제학술회의가 UCLA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지난달 15~19일 미 UCLA 교수회관에서 20여명의 불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모두 16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측은 정병조(동국대)교수와 심재룡(서울대)·김희성(서강대)교수가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동아시아불교에서의 지눌의 위치', '일본의 정토진종 창시자 친란의 사상에 미

해 주목을 받았다. 정교수는 또한 한국불교의 보편성으로 지적돼 온 '회통불교'의 개념과 관련, '회통불교'는 비법법식의 절충주의가 아니라 자기종파의 종지를 주장하면서도 타종파의 여러 교리적 특징을 방편으로 이해·포섭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한국불교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희망적"이라면서, 그 근거로 △재가불자들의 건강할 지성불교의 전통과 △비구니스님들의 철저한 수행기풍을 들었다.

◇정병조교수

친 경흥의 정토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정병조교수는 "한국불교의 중국으로부터의 북방전래설과 김해·가야지역으로의 남방전래설을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

'자기집착 해방이 공동목표'

윤호균교수 禪·정신분석 비교논문 논길

선 수행과 정신분석을 통한 정신치료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교수가 최근 발간된 논총(동양사상과 심리학)(성원사)에 게재한 논문 '정신치료와 수도: 정신분석과 禪을 중심으로'는 동·서양에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두 방향을 비교했다.

윤교수는 먼저 "정신치료나

선 수행은 다같이 자신의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주요한 무의식적 감정이나 욕구로부터의 해방 등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선 수행은 훨씬 철저한 자기정화와 극기를 요구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선에서의 깨달음과 정신분석에서의 통찰이 둘 다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불교에 대한 일본불교의 침투(서울대 최병영교수) 등 4편.

'한국불교학' 20집 준비 김인덕교수 회장 특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 동국대교수)는 10월 15일경 동국대 부회장이 김인덕교수 화갑기념 특집호로 (한국불교학) 20집을 상재(上梓)한다.

'삼론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논집에는 김영태교수의 '교구려 승량의 중국불교학상 위치', 김인덕교수의 '삼론학의 파사현정론' 등 기발표 논문 4편과 목장배교수의 '계율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 오형근교수의 '기신론에서의 심의식사상' 등 2편의 논문이 수록된다.

'한일문화이해' 학술회의

불교관련논문 4편 발표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삼룡 원광대교수)는 10월 2일, 3일 동국대동국관에서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제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 와세다대의 小川丸교수의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하여: 역사와 정래'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불교관련 논문은 △미륵신앙에 나타난 한·일의 비교(일본 대우대 雲井昭善교수) △원효저술의 일본유류와 그 영향(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 △불교에 있어서의 사원의 사상(愛知 學苑대 前田惠學교수) △한국

경주개발, 역사·자연경관 고려를

한상일교수 박사 논문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에 대한 관광지의 정체성(正體性: 대상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경) 인지도와 바람직한 개발 방안 등을 살펴본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양대관광학과 박사 학위논문으로 확정된 경주전통대 한상일교수의 '관광지의 관광지 정체성 인지에 관한 연구: 경주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관광지 환경이 어떠한지를 제시했다.

논문에서 한교수는 "경주의 고유한 정체성인 역사성은 불교문화를 토대로 형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주국립공원의 정체성 변화 요인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경미장 건설 등을 들고 대규모 개발에 앞선 문화재와 경관보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주의 개발이 △역사·자연경관의 보존 △역사



◇한상일교수

경관과 생활경관의 조화 △우수한 문화관광지 개발 △축적 행사 및 향토 예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사설처 이번주 '한국사회의 주류' 쉼니다.

'관' 하는 법을 알려 주십시오

문 불교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형식 모든 것은 둘이 아니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관'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관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병호·이리시 모현동)

답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지요?

또 나를 돌아다 볼 때 온 것은 누구이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옳고 누가 옳느냐,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냐를 알아야 하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 면목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 좀 해보아라 하는 것이 '관'입니다.

말하자면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걷는 것은 누구고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은, 보는 것은 누구인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심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답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아름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재제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누구나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라는 조건을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돌아다 보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놓고 맡길 줄 알아야 하겠지요. 믿고 맡겼으면 바로 거기서 내가 나왔기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끌고 다니고 나는 내가 있기에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용도대로 들고 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 말입니다.

따라서 관법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옛날 선사들이 목숨 때어 놓고 풀어라 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공부가 제대로 익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곧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불자니까 부처님 말씀 믿는다 하는 정도에서는 안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급박한 경우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볼 때 자꾸 망상이 끼어들게 됩니다.

둘째로 믿었으면 그 믿는 자리에 몰락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맡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면서 맡긴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는 것이지 마음공부하는 관법이 아닙니다.

맡기고 놓는다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 무쇠·잡철을 쏘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자리와 주인공 자리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관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믿고 놓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기 대상이 있어서 지켜보게 아니라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는데 둘 아니게 믿고 들어가는 게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요. 평등한 마음, 텅 빈 마음으로 내면을 주시하는 것, 그러면서 관하는 나와 관해지는 주인공이 나뉘어 지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이지만 부처님이 부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주인공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참나만이 참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바꿔놓아도 좋습니다. 여차피 공이요 이렇인 것들요.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나를 있게 한 것도 주인공이 한 일, 지금 내게 닥친 이 일도 주인공이 한 일, 그러나 주인공만이 답을 알 것이고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할 일이다' 라면서 일심으로 나아가서는 무심으로 지켜볼 때 진정한 '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몰락 놓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이 될때 그게 바로 참선인 것이지요.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와 같이 돌면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 아니고 뭐니까? 자리놓고 앉아야만 참선은 아니지요.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부처님께로 이어지는 주인공이란 이름의 우체통이 있다. 그 우체통에 닥치는대로 넣으면 배달이 되고 답장도 온다.'

답장을 지켜보게 '관'입니다.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지 : 23.1cm)

일천불 조성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5지 : 17.5cm)

삼천불 조성

대표 권영천 합장



(1자 : 33cm)

일만불 조성

황금이 반짝 영예 빛납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C에서 구워낸 도자기 불상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